현대소설연구 (제72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18.12.72.29

이상적 독자의 개념과 존재 양상

김 승 환*

요 약

이상적(ideal, 理想的) 독자는 바람직한 독서를 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런데 '무엇이 바람직한 독서인가?'에 대한 답은 이론과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이상적 독자는 작가의 의도, 작품의 내용과 형식, 상황과 맥락 등을 잘 이해하면서 독자 자신도 창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완벽한 독자다. 그런데 이런 독자는 거의 없으며, 작가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연구자들은 이런 완벽한 이상적 독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상적 독자를 논하였을 뿐, 이상적 독자의 존재 원리와 존재 양상에 대하여 논하지 않았다. 기존의 이상적 독자의 한계는 이상적 독자의 이론적 근거가 없이 일반적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이상적 독자를 논할 때 필요한 것은 이상적 독자의 개념 성립 여부와 이상적 독자의 존재 양상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작가의 마음에 내재하는 이상적 독자' 즉 텍스트 안의 이상적 내포독자(ideal implied reader)이다. 텍스트 구조의 개념인 내포독자와 텍스트 해석의 기능적 개념인 이상적 독자는 층위가 다르지만, 상호교집합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전제를 가정하고 이상적 독자를 살펴보자면, 텍스트 층위의 이상적 독자는 작가의 서사전략에 의해서 탄생한다. 작가가 이상적 독자를 설정하는 이유는, 작가는 이상적 독자를 통해서 자신의 서사전략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품의 구조와 문학성은 이상적 독자의 존재 양상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작가는 이상적 독자를 텍스트 안의 내포독자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런 텍

* 충북대학교 교수

스트 층위의 이상적 내포독자는 현실의 이상적 독자와는 현저히 다르다. 현실의 이상적 독자는 작가의 서사전략이 아니라 독자의 독서전략에 의해서 탄생한다. 그러므로 현실의 이상적 독자는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독자가 아니라 저항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독자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상적 독자의 존재 양상은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에서 독자를 중심으로 하는 현실의 이상적 독자는 제외하고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이상적 독자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①텍스트 안〔허구〕에 내재하면서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수동적 이상적 독자 ②텍스트 안〔허구〕에 내재하면서 창의적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능동적 이상적 독자 ③텍스트 바깥〔현실〕에 실재하면서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수동적 이상적 독자 ④텍스트 바깥〔현실〕에 실재하면서 창의적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능동적 이상적 독자 등이다. 이 중, ③과 ④의 독자는 현실의 실제 독자인 동시에 독서이론의 이상적 독자와 같을 수도 있지만 텍스트 층위에서 보면 개념이 다르다. 텍스트 안에 이 네 유형의 이상적 독자가 존재할 필연성(necessity)은 없고 우연성(contingence)만 있다.

주제어: 내포독자, 이상적 독자, 이상적 독서, 수동적 독서, 능동적 독서, 텍스트

목차

1. 서론 - 이상적 독자 개념의 필요성
2. 이상적 독자의 개념
3. 이상적 독자의 존재 양상
4. 결론 - 이상적 독자의 의미

1. 서론 - 이상적 독자 개념의 필요성

한국현대소설론에서 이상적 독자가 체계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

다. 하지만 이상적 독자는 서사이론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창작과정이나 독서이론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모든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많이 읽히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한정된 독자만이 작품을 읽는다. 작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독자를 대상으로 작품을 쓰지 않고, 자신이 설정한 이상적 독자를 대상으로 작품을 쓴다. 그 외에 언어적 제약, 문식능력(literacy), 독서환경 등도 독자를 제한하는 요소다. 그러므로 작가는 창작과정에서 자신이 설정한 독자의 이해력, 감성, 취향, 어법 등을 고려한다. 작가가 텍스트에 이상적 독자를 설정하는 이유는, 이상적 독자가 있어야만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작가가 기대하는 이상적 독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작가의 고려(care)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작품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가는 작품/텍스트[1] 속에 자신의 창작의도를 잘 이해하고 '작품의 의미를 완벽하게 해독'[2]하면서 작품을 즐기는 이상적 독자를 설정한다. 텍스트에 내포된 독자는 이상적 독자(the reader, it was to posit an ideal reader)[3]로 배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독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작가가 설정한 이상적 독자는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일 수 있기 때문에 독자는 다른 이상적 독자를 희망한다. 그런데 독자가 설정하는 이상적 독자는 작가의 의도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독자가 아니다. 오히려 작가의 무의식적 오류를 찾아내고, 작품의 틈(gap)을 메우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작품을 읽

1) 작품(work)이 예술가가 창의적 상상을 통하여 생산한 언어예술의 결과물인 반면 추상적 구조물인 문학 텍스트(text)는 의미의 단락이면서 상징의 언어체계이다.

2) 변광배, "사르트르와 바르트의 '작가-독자론' 비교 연구", 『외국문학연구』 4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1년 11월, 64쪽. (55-80)

3) Wolfgang Iser, *The Act of Reading: a theory of aesthetic response*. (London and Henley: Routledge and Kegan Paul, 1978), p.66.

는 창의적 독자(creative reader)다. 또한 기존의 틀을 깨고 텍스트를 새롭게 읽는 저항적 독서(resistant reading)를 하는 저항적 독자(resistant reader)다. 그러므로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적 독자와 독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독자는 다르다. 그런데 전통적 서사학(narratology)에서 이상적 독자는 대부분 작가의 관점에서 보는 이상적 독자였다. 다시 말하면 이상적 독자의 '이상적'이란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적 독자'다. 발신자(addresser, sender)인 작가가 이상적 수신자(addressee, recipient)를 설정하는 이유는, 실제 독자가 작품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반면 이상적 독자는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웨인 부스는 이런 독자를 가정된 독자(postulated reader)라고 했고[4], 프린스(G. Prince)는 이상적 독자(lecteur idéal)라고 했다.[5] 이처럼 이상적 독자는 작가의 동반자인 동시에 작가가 예상하는(presumed) 모델독자(model reader)다. 그 이상적 독자는 암호해독자로서 텍스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입장[6]에 놓여 있다. 그런 점에서 크리스(Gunther Kress)는 이상적 독자를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연스러운(unproblematic and natural) 독서를 하는 독자'[7]라고 말한다.

이상적 독자이론의 한계는 첫째, 이상적 독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슈미트(Wolf Schmid)를 비롯한 서사이론가들은 이상적 독자 자체를 논의하지 않고, 이상적 독자의 존재자적 기능과 역할을 논의하였다는 점이고 둘째, 한국현대소설연구가들 역시 일반적인 의미에

4) Wayne C. Booth, *The Rhetoric of Fi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p.137.

5) Gerald Prince, "The Narratee Revisited." Style 19, 1985, pp.299-303.

6) Umberto Eco, *The Role of the Reader: Explorations in the Semiotics of Text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p.273.

7) Gunther R. Kress, *Linguistic Processes in Sociocultural Practice*, (Deakin University, 1985), p.36.

서 이상적 독자를 설명하고 있을 뿐, 이상적 독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이상적 독자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상적 독자는 작가의 의도, 작품의 내용과 형식, 상황과 맥락 등을 잘 이해하면서 독자 자신도 창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완벽한 독자다. 그런데 이런 독자는 거의 없으며, 작가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연구자들은 이런 완벽한 이상적 독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상적 독자를 논하였으나 이상적 독자의 존재 원리와 존재 양상에 대하여 논하지 않았다. 기존의 이상적 독자의 한계는 이상적 독자의 이론적 근거가 없이 일반적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적 독자를 논할 때 필요한 것은 이상적 독자의 개념의 성립 여부와 이상적 독자의 존재 양상이다. 특히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적 독자와 일반적 개념의 이상적 독자를 구별한 다음, 그 이상적 독자가 존재하는 원리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한국현대소설이론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이상적 독자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 이상적 독자의 존재 조건을 분석한 다음, 이상적 독자의 존재 양상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런 시각에서 이상적 독자가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연구사는 2장의 '이상적 독자의 개념'에서 약술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2. 이상적 독자의 개념

1) 독자의 일반적 개념

독자는 '읽는 사람' 특히 문학작품을 읽는 사람을 의미한다. 중세영어의 읽는 사람(reader) 중 읽는 행위와 과정을 강조하여 '문학

작품을 읽는 문식능력(literacy)이 있는 사람'을 주로 일컬었다. 한자문화권에서 독자(讀者)는 근대에 들어 작가의 상대적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독자는 작가가 창작한 작품을 수동적으로 읽는 이상적 수신자(ideal recipient)[8]로 간주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독자는 수동적으로 문학작품을 포함한 출판물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었다. 그렇다면 독자는 왜 작품/출판물을 읽는 것인가? 독자는 작품을 읽으면 무엇을 느끼거나 얻는데, ①독자는 작품을 읽고 지식이나 교훈을 얻으며 ②독자는 작품을 읽고 재미와 기쁨을 느낀다. 이런 점을 강조하여 효용론(效用論)이라고 한다. 효용론은 '독자의 독서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독자는 자신의 경험, 철학, 사상, 감정, 의지, 목표 등의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읽는다. 따라서 독서의 목적은 각기 다르다. 가령 이상(李箱)의 〈종생기〉를 독자의 관점에서 읽으면 이 텍스트 해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 만(滿) 26세(二十六歲)와 3개월(三個月)을 맞이하는 이상(李箱) 선생(先生)님이여! 허수아비여!
> 자네는 노옹(老翁)일세. 무릎이 귀를 넘는 해골(骸骨)일세. 아니, 아니.
> 자네는 자네의 먼 조상(祖上)일세. 이상(以上)
> 十一月二十日 동경(東京)서[9]

대체 이상은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이 난해한 작품을 썼을까? 이

8) Wolf Schmid, "Review of B. A. Uspenskij, A Poetics of Composition", *Poetica* 4, 1971, pp.124 - 134.

9) 이상, 「종생기(終生記)」, 권영민의 현대문학위키, Acc., 2018년 10월 25일. http://ko.kliterature.wikidok.net/dok/종생기(원문)
*권영민의 현대문학위키는 정확한 원전이므로 연구의 판본으로 적합할 뿐 아니라, 이 논문은 작가작품론이 아니라 서사학 이론이므로 이 판본을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상이 1937년 『조광』에 발표한 〈종생기〉의 독자는 식민지 조선의 문식능력(literacy)이 있는 지식인이다. 그런데 지식인 독자라고 하더라도 〈종생기〉의 내용과 형식 때문에 긴장은 했겠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평론가 최재서가 〈날개〉를 비롯한 이상의 작품은 리얼리즘의 심화[10]라고 했지만 당대의 다른 지식인들은 작품에 대한 논평은커녕 해석을 하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종생기〉의 특이한 표현과 의미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독자는 작가 자신밖에 없다. 작가 자신이 자기의 작품을 이상적으로 읽는 유일한 존재일 수 있다.[11] 그렇다면 그는 가장 이상적인 독자인 자신을 대상으로 작품을 썼을까? 그것은 아니다. 작가 이상 역시 자기 작품을 잘 읽고 이해하는 독자를 상상하고 가정하면서 작품을 쓴 것은 분명하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에이브럼즈(M. H. Abrams, 1912~2015)의 삼각형 이론에 의하면 작가는 표현의 욕망을 작품으로 표출하는 존재라면 독자는 작가가 표현한 작품을 유용하게 수용하는 존재[12]이다. 따라서 작가와 독자는 작품을 매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전통적으로 작가는 창조적 예술가로 간주되었고 독자는 순종적 독자(compliant reader)이거나 수동적 수용자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롤랑 바르트가 '작가의 죽음과 독자의 탄생'[13]을 주장하고 1960년대의 수용미학과 독자반응

10) 최재서, 「『천변풍경』과 『날개』에 관하야」,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11) 이런 독서의 양태를 보여준 대표적인 작품은 최인훈의 〈화두〉를 들 수 있다. 최인훈은 자신을 대리하는 존재, 독고준을 텍스트 안에 설정하고 독고준의 사유를 통하여 독서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권성우,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책과 독서에 대하여", 『우리문학연구』 49호, 우리문학회, 2016년 1월, 224쪽. (199-228)

12) M. H. Abrams, *The Mirror and the Lamp: Romantic Theory and the Critical Tradition*, (Oxford Univ Press, 1953).

13) Roland Barthes, 『텍스트의 즐거움』 『롤랑 바르트 전집』 12권, 김희영 옮김,

이론이 널리 퍼진 이후 독자의 기능과 지위가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했다. 독자반응비평과 수용미학의 이론가들은 작가보다 중요한 것은 독자이고, 작품보다 의미 있는 것은 텍스트라고 단언했다.[14] 그리고 독자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텍스트를 읽어서 작품의 의미를 재창조하는 독자반응이론과 수용미학을 제안했다.

롤랑 바르트(R. Barthes)는 후기구조주의의 입장에서 작가의 작품이 아닌 객관적 텍스트의 탄생을 선언[15]했다. 바르트에 의하면 텍스트는 의미생성의 장소인데, 텍스트를 완성하는 진정한 창조자는 (작품을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독자다. 이 창의적 독자는 텍스트를 객체화시키는 힘(puissance)[16]을 가지고 읽는 주체적 독자다. 반면 야우스(H. R. Jauß)와 이저(W. Iser)가 제창한 수용미학에서는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것을 예술적(artistic) 생산이라고 말하고, 독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작품을 읽고 그 의미를 완성해 나가는 것을 미적(esthetic) 창조라고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독자의 독서 과정이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생산하는 원천인데, 이 독자가 바로 이상적 독자[17]다. 이 독자이론에서는 작가와 분리된 텍스트를 전제로 하여 독자를 작품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창조자로 간주한다. 이 능동적 독자는 작가의 의도에 저항하는 저항적 독자

동문선, 2002.

14) *Reader-response Criticism: From Formalism to Post-structuralism*, edited by Jane P. Tompkin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0).

15) 텍스트를 새롭게 구성하는 독자의 창의적 해석이 의미가 있다. 여기서 저자의 죽음과 독자의 탄생 그리고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개념이 등장한다. 그래서 후기구조주의는 하나의 목표, 고정된 의미, 작가/예술가 중심 등을 부정하는 해체적 방법을 택한다. 그런 점에서 문학작품과 같은 문화현상이나 사건과 같은 사회현상은 모두 열린 텍스트(open text)다.

16) 변광배, 「사르트르와 바르트의 '작가-독자론' 비교 연구」, 『외국문학연구』 4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1년 11월, 63쪽. (55-80)

17) 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365쪽.

(resistant reader)이므로 자신의 사상, 감정, 문화 등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발휘하는 한편 작품의 틈을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런 창의적 독자는 작품을 개인적으로 해석하거나, 상황, 시간에 따라서 달리 해석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작품 해석이 아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텍스트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텍스트가 작가와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텍스트 안에 서사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여전히 작가다. 특히 작가는 자신의 서사전략을 실현하는 존재를 이상적 독자로 설정하고 텍스트 안에 매복한다. 이렇게 하여 이상적 독자가 텍스트 안에 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적 독자는 누구인가?

2) 이상적 독자의 개념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상적 독자는 작가의 의도, 작품의 내용과 형식, 상황과 맥락 등을 잘 이해하면서 독자 자신도 정신적 쾌감과 가치를 느끼는 독자다. 이상적 독자[18]는 첫째, 작가와 작품의 관점에서 보는 이상적 독자와 둘째, 독자의 관점에서 보는 이상적 독자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작가가 생각하는 독자는 자기 작품을 잘 이해하고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상적 독자다. 작가는 이런 이상적 독자를 작품/텍스트에 매복한다. 작가가 이상적 독자를 설정하는 이유는, 이상적 독자가 있어야만 작가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작가가 기대하는 이상적 독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적 독서는 문학독서를 넘어서 연구독서에 이르러야 가능[19]하다. 그런데

18) 이상적 독자는 이상적 청자(ideal listener)와 이상적 관객(ideal viewer)과 대등한 개념이다.

19) 정병기, 「연구독서의 유형과 과정 및 방법- 연구독서 연구를 위한 시론(試論)과

이상적 독서를 수행하는 이상적 수신자는 발신자(sender)인 작가가 발신하는 이야기를 수신하는 추상적 독자(abstract reader)[20]이므로 실제 독자(real reader, actual reader, concrete reader)는 아니다.

한편 독자의 입장에서 보는 이상적 독자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독자다. 그런데 서사학의 이상적 독자와 독서이론의 이상적 독자가 다르다. 한국에서는 주로 독자이론에서 말하는 이상적 독자를 논의했다. 독서이론의 관점에서 김동환은 "이상적 독자는 언제 어떤 텍스트가 주어지더라도 자신의 '독법'에 따라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하며 그것을 내면화할 수 있는 문학적 능력을 지닌 독자"[21]로 규정한 바 있으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을 가진 독자[22]나 연구하고 탐구하는 진지한 독자[23] 그리고 텍스트를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독자[24]를 이상적 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적 독자에 관한 이런 규정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독자와 독서의 관점에서 보는 이상적 독자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제한적이다.

반면 서사학에서는 수동적 수신자를 이상적 독자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이상적 독자의 '이상적'이란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적 독자'

새로운 독서법 제안」, 『사고와 표현』 제2집 제2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09년 11월, 112쪽. (111-138)

20) Wolf Schmid, *Narratology*, translated by Alexander Starritt, (Walter de Gruyter GmbH & co., 2010), p.57.

21) 김동환, 「비판적 사고와 독서 ; 비평 능력 신장을 위한 문학 독서교육」, 『독서연구』 20권 0호, 2008년 12월, 한국독서학회, 112쪽.

22) 류보라, 「청소년의 독자 인식 양상과 범주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6권 0호, 국어교육학회, 2013년 4월, 328쪽.

23) 김종갑, 「Wordsworth의 시에 있어서 이상적인 독자」, 『영어영문학』 39권 1호, 한국영어영문학회, 1993년 3월, 23쪽. (19-40)

24) 원자경, 「소설텍스트의 읽기능력 신장을 위한 질문 전략 연구 -이상 〈날개〉를 중심으로 -」, 『독서연구』 20권 0호, 2011년 6월, 한국독서학회, 238쪽. (237-279)

다. 작가가 이상적 수신자를 설정하는 이유는, 실제 독자가 작품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반면 이상적 독자는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한편 '텍스트를 통하여 세계를 이해'[25]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이상적 독자는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상적 독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①텍스트 안에 내포독자(implied reader)로 존재한다는 관점과 ②작가의 마음에 존재한다는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또 다시 '이상적 독자는 텍스트 안에 내포되어 있는가 아니면 작가의 마음에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이상적 독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두 존재 모두 허구적(fictive) 존재이며 추상적 개념이라는 점은 같다. 이에 대하여 이저(W. Iser)와 채트먼(S. Chatman)을 비롯한 서사이론가들은 텍스트의 허구적 존재인 내포독자를 이상적 독자로 간주한다. 채트먼에 의하면 텍스트의 내포독자(implied reader)는 내포작가(implied author)의 상대적인 개념이며 실제작가를 대리하는 텍스트 내의 허구적 존재다. 이 내포독자가 바로 작가의 무의식 속에서 자동적으로 설정된 이상적 독자이다. 그렇다면 소설론과 서사학〔내러티브이론〕 또는 텍스트 이론에서 말하는 이상적 독자는 누구인가?

소설론과 서사학에서 말하는 이상적 독자는 작가의 의도와 작가의 의도가 구현된 텍스트 안의 이상적 독자다. 소설론에서 이상적 독자는 작가의 서사전략에 의해서 창조된 허구적 존재이고 그 허구적 존재는 텍스트 안에 내재하는 내포독자이다.[26] 이렇게 볼 때 작가의 의도는 익명의 독자를 직접 향하지 않고, 텍스트 안의 예상된

25) 이국환, 「독서, 연민과 자기 이해의 여정」, 『국제언어문학』 28호, 국제언어문학회, 2013년 10월, 25쪽. (25-51)

26) 내포독자(implied reader)는 텍스트이론에서 텍스트구조 안에 내포된 독자라는 뜻의 구조적인 개념이고, 이상적 독자(ideal reader)는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독자의 기능적 개념이므로 서로 층위가 다르다. 그러나 내포독자가 이상적 독자일 수 있고, 이상적 독자가 내포독자일 수 있으므로 층위는 다르지만 교집합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독자를 향해 있다. 여기서 작품과 텍스트를 분리할 필요가 생긴다. 만약 작품을 텍스트로 보지 않거나, 텍스트로 보기는 하지만 텍스트 안에 내포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상적 독자는 작가의 마음에만 존재한다. 이럴 경우, 작가가 바로 독자[27]인 셈이다. 그런데 작가 자신이 이상적 독자가 되는 것은 타인(他人)이 아니므로 의미가 없다.[28]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상적 독자는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이상적 내포독자와, 텍스트 바깥에 존재하는 이상적 독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상적 독자는 텍스트의 내부와 외부를 횡단하는 열린 독자이면서 양면성을 가지는 독자이다. 한편 기능에 따라서 이상적 독자는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③완벽한 이상적 독자는 작가의 의도, 어법, 표현, 사상, 감정, 문체, 배경 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작가의 창작의도에 따라서 작품을 읽는 수동적 수신자(submissive recipient) 또는 순종적 독자(compliant reader)다. 반면 ④창의적 이상적 독자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작품의 틈(gap)을 메우면서 작품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능동적 독자다. 여기서 틈이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표현된 결과의 차이를 말한다. 능동적 독자는 이 틈을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작가가 완전하게 표현하지 못한 틈을 없애거나 좁힌다. ④창의적 이상적 독자가 바로 일반적 개념에서의 이상적 독자이다. 그리고 독자의 입장에

27) 김근호, 「독자로서의 작가 - 최인훈 〈화두〉의 문학독서 현상학」, 『현대소설연구』 71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5쪽. (5-31)

28) Baxtin criticizes the idea that the ideal reader conceptualized in this way does not contribute anything of himself, anything new, to the work and that he lacks "otherness," a prerequisite of the author's "surplus" (427 - 28).
Wolf Schmid, "Textadressat", edited by Th. Anz., *Handbuch Literaturwissenschaft*. (Stuttgart: Metzler, 2007), vol. 1, pp.171 - 81.

서 기대하는 이상적 독자이다. 따라서 ③완벽한 이상적 독자는 작가의 의도를 수용하는 수동적 수신자이고 ④창의적인 이상적 독자는 주체적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능동적 독자이다.

이렇게 볼 때 이상적 독자의 존재양상은 ①텍스트 안에 내재하는 이상적 독자, ②텍스트 바깥에 존재하는 이상적 독자, ③수동적이지만 완벽하게 작가의 의도를 수용하는 이상적 독자, ④주체적이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이상적 독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네 존재양상에 따라서 다섯 가지 유형의 이상적 독자가 가능하다. 그것은 첫째, 텍스트 안에 내재하면서 작가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수동적 이상적 독자 둘째, 텍스트 안에 내재하면서 창의적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능동적 이상적 독자 셋째, 텍스트 바깥에 존재하면서 작가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수동적 이상적 독자 넷째, 텍스트 바깥에 존재하면서 창의적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능동적 이상적 독자 다섯째, 현실의 실제 독자이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즐기는 이상적 독자 등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논문은 서사학과 텍스트 이론에서 보는 이상적 독자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다섯 번째의 현실의 실제 독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유형의 독자를 텍스트 층위의 이상적 독자로 간주한다.

3) 이상적 독자의 개념 성립 문제

앞에서 독자의 개념과 이상적 독자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실제 독자의 개념은 분명하고 또 필연적으로 존재하지만, 이상적 독자의 개념은 불분명하고 또 우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슈미트나 웨인 부스를 포함한 서사이론가들은 모두 이상적 독자를 추상적(abstract)[29] 존재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런데

29) Wolf Schmid, *Narratology*, translated by Alexander Starritt, (Walter

이들의 주장은 '실제 독자(real reader, actual reader, concrete reader)는 구체적으로 존재하지만 작가의 관점에서는 추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상적 독자는 텍스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이상적 독자는 서사이론가들이 '이상적 독자란 추상적 존재다'라고 당위적 명제로 만들어 선언한 결과일 뿐, 개념 자체의 성립 여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상적 독자가 성립하는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개념(concept, 槪念)은 어떤 대상의 공통적 요소를 종합하여 보편적이고 추상적으로 만든 것이며 생각과 판단의 근거이다. 개념의 어원은 라틴어 '인지하여 무엇을 받아들인다〔concipiō〕'의 명사형인 생각〔conceptus〕이다. 그러므로 생각은 '무엇에 대한 생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생각의 지향(intentio)이라고 했고, 현상학자 후설은 의식의 지향성(intentionality, 指向性)이라고 했다. 의식이 지향하는 대상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얻은 보편적 생각이 곧 개념이다. 가령, '이상적 독자'라는 개념은 다른 독자와 비교하여 규정한 것이다. 가령 이상적 독자는 이상적이지 않은 독자와 반대되는 개념이고 의도된 독자, 예정된 독자, 가정된 독자, 허구적 독자, 가공의 독자, 추상적 독자와 같은 여러 독자의 개념과 비교하여 이상적 독자의 개념을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상적 독자는 관념이 아니다. 관념이 마음의 추상적인 생각인 것과 달리 개념은 그 관념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다. 개념은 마음이 가진 상이므로 표상(表象)이기도 하다.

이상적 독자의 개념을 표상으로 만들어서 '가장 이상적 독서를 하는 독자'와 같은 개념을 기호로 표기한 것이 '이상적 독자'라는 단어다. 그런데 '이상적 독자'라는 단어에는 실제 독자가 존재하지 않는

---

de Gruyter GmbH & co., 2010), p.57.

다. 왜냐하면 '이상적 독자'는 상징기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상적 독자는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기호로 표시된다. 그런데 이상적 독자는 작품/텍스트 안의 허구적 존재이거나 작가의 초청(author's invitation)으로 텍스트에 존재[30]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상적 독자는 텍스트와 작가의 관계에서 가능성과 우연성으로 존재할 뿐이다. 또한 이상적 독자는, 현실의 실제 독자와 달리 텍스트 안에서, 그리고 작가의 마음에서 성립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상적 독자는 생산자(producer)인 동시에 소비자(comsumer)가 되는 이중적 존재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생산적소비자(prosumer)는 맥루한(Marshall McLuhan)과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한 말[31]인데, 그들이 말한 프로슈머는 자신의 견해와 지식을 생산자에게 전달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을 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소비자다. 이 프로슈머이론은 독서이론에서 이상적 독자가 가져야 하는 존재론적 양상으로 볼 수 있다.

3. 이상적 독자의 존재 양상

1) 이상적 독자의 존재 준거(Ontological Ground 存在準據)

이상적 독자는, 텍스트에서는 상상된 독자(imagined reader)이고 현실에서는 실존하는 실제 독자이다. 텍스트의 이상적 독자는 내포독자의 한 속성이다. 따라서 이상적 독자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채트먼의 서사구조의 텍스트[32] 안에 존재하거나 작가

30) Gunther R. Kress, *Linguistic Processes in Sociocultural Practice*, (Deakin University, 1985), p.36.

31)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Bantam Books, 1980).

의 마음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허구적 존재인 이상적 독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상적 독자가 있다"고 말할 때, 이상적 독자를 감각과 경험으로 인지한다면 그것은 경험론(Empiricism)적 존재이고, 실재하지 않지만 '작가의 마음에 이상적 독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관념론(Idealism)적 존재이다. '이상적 독자가 있다'는 '이상적 독자가 없다'와 함께 사유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있다'는 '존재한다'이고 '있음'은 '있다'의 원리와 본질인 '존재'다. '있다'와 '있음', '없다'와 '없음'의 문제는 형이상학의 존재론과 그것을 인지하는 인식론의 핵심 과제다. 일반적으로 실재하는 상태로 존재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것을 존재자[33]라고 하고, 그 존재자들이 존재하는 의미와 작용 그리고 존재자의 총괄을 존재라고 한다. 가령 '이상적 독자'가 '지금 여기 현실에 있을 때, '이상적 독자는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상적 독자가 현실에 없더라도 '이상적 독자가 없는 상태로 존재'한다. 이처럼 어떤 시간, 공간, 인식에서 존재하는 것을 존재자(存在者)라고 하고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을 강조하여 '실존(實存)'이라고 한다. 가령, 1920년대의 작가 이상(李箱)은 실존하는 존재자였다. 그런데 이상은 다음과 같이 스스로 독자가 되어〔becoming〕 텍스트 안에 존재〔existing〕한다.

---

32) 채트먼(S. Chatman)은 〈텍스트 밖의 실제 작가 - (텍스트)'텍스트 안의 내포작가 - 내포작가가 설정한 화자/서술자 - 이야기 - 내포독자가 설정한 서술수용자 - 텍스트 안의 내포독자' - 텍스트 밖의 실제 독자〉의 서사구조도를 제시하고 내포독자는 바람직한 청중(desired audience)이라고 명명했다. Seymour Chatman, *Story and Discours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78), pp.147-155.

33) 존재자는 어떤 시간과 공간에 실제로 존재하고 경험으로 만날 수 있는 개별적 개체나 특수한 대상을 말한다. 반면 존재는 그 모든 류의 총집합인 동시에 존재자들에 해당하는 '있다'의 본질이고 실재를 초월하는 초월적 개념이다.

> 여기 이 이상(李箱) 선생(先生)님이라는 허수아비 같은 나는 지난 밤 사이에 내 평생(平生)을 경력(經歷)했다. 나는 드디어 쭈굴쭈굴하게 노쇠(老衰)해 버렸던 차에 아침(이 온 것)을 보고 이키! 남들이 보는 데서는 나는 가급적(可及的) 어쭙지않게 (잠을) 자야 되는 것이어늘, 하고 늘 이를 닦고 그리고는 도로 얼른 자 버릇하는 것이었다. 오늘도 또 그럴 세음이었다.[34]

〈날개〉라는 작품과 〈날개〉의 텍스트에 존재하는 존재자는 과거, 현재, 미래 등 어떤 시간, 공간, 실제, 관념, 가상 등 어떤 영역에서 실현된 실체다. 반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는' 존재자는 '용(龍)'이나 '봉황'과 같은 것인데 이 개념은 현실에 실재하지는 않지만 인식에서 존재하는 존재자다. 일반적으로 실존하는 존재자는 어떤 시간과 공간에 실제로 존재하고 경험으로 만날 수 있는 개별적 개체나 특수한 대상을 말한다. 반면 존재는 그 모든 류의 총집합인 동시에 존재자들에 해당하는 '있다'의 본질이고 실재를 초월하는 초월적 개념이다. 그런데 존재자는 '주어져 있는(es gibt) 가상의 존재'도 포함한다. 존재자와 존재의 본질[35]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서 추출한다. 가령, '이상적 독자란 무엇인가?'라고 묻고, '이상적 독자란 작품을 이상적으로 읽고 수용하는 독자다'라고 답하여 이상적 독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적 독자는 여러 양상의 독자가 이상적인 존재가 되어서

---

34) 이상, 『종생기(終生記)』, 권영민의 현대문학위키, Acc., 2018년 10월 25일. http://ko.kliterature.wikidok.net/dok/종생기(원문)

35) 존재자는 존재하면서(existing) 있는 것(being)이고 존재는 그냥 있는 것(being)이다. 또한 존재가 '무엇이 되어 〔becoming〕 있는(being)' 상태가 존재자다. 따라서 존재자가 특수한 것이라면 존재는 초월적인 것이다. 반면 인식의 주체인 인간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실존은 '어떻게 하여 있는〔being + becoming + existing〕' 것이다. 그런데 실존은 존재에 응답함으로써 무엇이 되어서(becoming) 존재(being)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존재가 작용하여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존재자다.

〔becoming〕 텍스트나 마음에 있는〔existing〕 것이고, 이것을 존재〔being〕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이상적 독자는 현실에 실재하지는 않더라도 텍스트와 마음에 있는 추상적 존재(abstract being)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적 독자는 실제 독자가 이상적인 양상이 '되어서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독자는 이상적 독자가 될지 비이상적 독자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확실한 이상적 독자는 작가의 마음에 내재하든지, 텍스트의 내포독자에 부여되는 허구적 개념이다. 이 허구의 이상적 독자가 현실의 구체적 존재(concrete being)라면 '있고〔being + becoming + existing〕' 실존하는 이상적 독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실의 이상적 독자는 텍스트에서 가능성만으로 존재할 뿐이다.

2) 이상적 독자의 존재 범주(Category)

지금까지 '이상적 독자가 있다', 그리고 '그 이상적 독자는 텍스트 안에 존재하거나 작가의 마음에 존재한다'는 명제의 타당성을 논의했다. 그리하여 이상적 독자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텍스트나 작가의 관계 속에서 가능성과 우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상적 독자가 존재하는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이상적 독자의 범주설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상적 독자가 어떤 시간, 공간, 상황, 맥락에서 존재하는지 알아야만 이상적 독자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범주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이상적 독자는 실제 독자보다 작품 분석을 잘 한다.'는 문장은 타당할까?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없지만 타당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상적 독자와 실제 독자는 위상과 층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작품 분석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상적 독자와 실제 독자를 비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주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범주는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를 말하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유개념(類槪念)이다. 범주는 이상적 독자와 같이 존재하는 것(being)을 분류하고 비교하여 그 존재자의 속성, 특질, 관계, 의미를 이해하는 한편 개념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서구어 범주〔catēgoria〕는 라틴어 속성을 분류〔class of predicables〕하는 것에서 유래했고, 한자어 범주(範疇)는 오행을 바탕으로 하여 세상을 설명한 홍범구주(洪範九疇)에서 유래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세계의 동식물을 분류하면서 최초로 범주의 틀을 세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Category)〉에서[36], '이것은 ~ 이다'라는 문장의 술어(predicate, ~)에 해당하는 것을 범주로 간주하고 범주 분류의 기준을 10개로 제시했다. 그것은 ①실체(substance) ②양(quantity) ③질(quality) ④관계(relation) ⑤시간(time) ⑥장소(place) ⑦위치(position) ⑧상태(state) ⑨능동(action) ⑩수동(affection)이다. 가령 '이상적 독자는 작품/텍스트 안에 존재한다'고 할 때 '안에(공간), 작품/텍스트(위치), 한 사람의 독자(질), 독자(실체), 존재한다(상태)'를 나타낸다. 칸트(I. Kant)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설정을 발전시켜 12가지 범주로 나누면서 인간에게는 경험 이전의(a priori) 이성적 능력이 있어서 어떤 것이라도 12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개념을 정의하게 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칸트는 판단표와 범주표를 만들고, 범주를 수학적 범주와 역동적 범주로 나누었다. 첫째, 수학적 범주를 단일성(unity), 복수성(plurality), 전체성(totality)에

36) Aristotle, "Categories",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vol 2, translated by J. L. Ackril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관한 ①양적 범주와 실재성(reality), 부정성(negation), 한계성(limitation)에 관한 ②질적 범주로 나누고 둘째, 역동적 범주를 내재한 실체와 우연한 존재(inherence and subsistence), 인과성과 종속(causality and dependence), 상호성(community)에 관한 ③관계(relation)로 나누고 가능성(possibility), 존재(existence), 필연성(necessity)에 관한 ④양상(modality)으로 나누었다. 이상적 독자는 칸트가 설정한 범주로 그 범위를 좀더 구체화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텍스트 안과 바깥을 넘나드는 실제 독자[37]만이 아니라 이상적 작가처럼 현실에는 없더라도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허구적 독자도 가능하다.

이상적 독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작품/텍스트 안의 내포작가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내포독자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거나 실제 작가가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상의 관계로 존재한다. 이런 관계는 또한 내포작가가 있기 때문에 이상적 독자가 존재하는 인과성이 작용하고 있다. 결국 실제 작가, 내포작가, 내포독자, 이상적 독자, 실제 독자는 상호성을 가지고 관계하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볼 때 이상적 독자의 존재는 관계 속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이상적 독자의 존재 양상(Modality)

지금까지 '이상적 독자가 있다', 그리고 '그 이상적 독자는 텍스트 안에 존재하거나 작가의 마음에 존재한다'는 명제의 타당성을 논의했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이상적 독자가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범주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작가가 텍스트를 이상적 독자

37) 김승환, 「소설텍스트의 현실과 허구를 나누는 선」, 『현대문학이론연구』 70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년 9월, 50쪽. (31-55)

를 위해서 구성(text constructs for them)[38]하는 것이므로 이상적 독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 존재의 타당성도 확인되었으며, 상호관계의 범주도 설정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상적 독자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이다.

모든 존재에는 양상이 있다. 양상(樣相)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이며 논리학이나 철학적 의미에서 판단을 확실하게하기 위한 양태와 타당의 정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상적 독자는 어떤 상태와 현상으로 존재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에 의하면 양상은 필연적 양상과 우연적 양상이 있다. 그런데 이상적 독자는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상적 독자는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필연은 '어떤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것이 아닐 가능성은 없다(~◇~p)'는 뜻이고 우연은 '어떤 가능한 것(◇p)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상적 독자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면 '이상적 독자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가 되고 우연적으로 존재한다면 '이상적 독자는 존재할 수 있다'가 된다. 앞에서 이미 이상적 독자의 존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상적 독자가 존재한다'는 명제는 참이다. 하지만 그 존재의 양상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상적 독자의 필연성(necessity)은 없는 것이고 우연성(contingence)만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칸트(I. Kant)의 양상 이론에 따르자면 필연성과 우연성 이외에 현실성과 비현실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상적 독자가 '항상, 반드시' 존재하는 필연성이 없고 우연성만 있기

38) Gunther R. Kress, *Linguistic Processes in Sociocultural Practice*, (Deakin University, 1985), p.36.

때문에 현실에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령 이상적 독자가 내재하는 텍스트 구조를 인정하지 않고 작품만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텍스트 안의 이상적 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작가의 마음에 존재하는 이상적 독자' 역시 '마음'은 관념일 뿐이므로 실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유물론(Materialism)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적 독자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상적 독자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성이 중요해진다. 이상적 독자가 우연한 가능성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양상을 다음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일세(一世)의 귀재(鬼才) 이상(李箱)은 그통생(通生)의 대작(大作)「종생기(終生記)」일편(一篇)을 남기고 서력(西曆) 기원후(紀元後) 1937년(一千九百三十七年) 정축(丁丑) 3월(三月) 3일(三日) 미시(未時) 여기 백일(白日) 아래서 그 파란만장(波瀾萬丈)(?)의 생애(生涯)를 끝막고 문득 졸(卒)하다. 향년(享年) 만(滿) 25세(二十五歲)와 11개월(十一個月). 오호(嗚呼)라! 상심(傷心)커다. 허탈(虛脫)이야. 잔존(殘存)하는 또 하나의 이상(李箱) 구천(九天)을 우러러 호곡(號哭)하고 이 한산(寒山) 일편석(一片石)을 세우노라. 애인(愛人) 정희(貞姬)는 그대의 몰후(歿後) 수삼인(數三人)의 비첩(秘妾)된 바 있고 오히려 장수(長壽)하니 지하(地下)의 이상(李箱)아! 바라건댄 명목(瞑目)하라.[39]

작가 이상은 텍스트 안에서 스스로 독자가 되고 있다. 자기가 자기에게 발화하는 이 광경은 기이하지만, 자기 묘비명을 텍스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이상 자신이 자기의 죽음을 읽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종생기〉가 난해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사람의 현실적 독

39) 이상, 「종생기(終生記)」, 권영민의 현대문학위키, Acc., 2018년 10월 25일. http://ko.kliterature.wikidok.net/dok/종생기(원문)

자는 존재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상의 중요한 요소인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다. 대부분 '이상적인 독자는 현실적인 독자와 모순'[40] 관계다. 이를 위하여 '이상적 독자가 현실에서 존재 가능한가?'라고 묻고 '이상적 독자는 현실에서 존재 가능한 실재다'라고 답하여 이상적 독자의 현실성을 확정할 수 있다. 이처럼 가능한 실재를 가능실재라고 한다. 논리학자 루이스에 의하면 현실세계(actual world)는 가능세계(possible world) 중의 하나가 실현된 것[41]이며 현실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가능세계 또한 실재다. 그런데 현실세계는 단지 '지금' '여기'라는 지표(indexical)일 뿐이고 '어떤 때' '거기'와 같은 다른 세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적 독자가 '지금' '여기'에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때' '거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어디엔가 실제로 존재하기도 한다.

현실세계도 사실은 가능세계 중 하나가 '실현된' 것인 것처럼 실제 독자 역시 가능한 독자 중의 하나가 실현된 독자다. 이 원리를 이상적 독자에 적용하면 '이상적 독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상적 독자는 실현가능한 독자다.' 그러므로 웨인 부스가 '이상적 독자가 존재할 수 없다(an ideal reader who could never possibly exist)'[42]고 했다고 하더라도 가능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가능세계는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반사실적 조건문(反事實的條件文)의 형태로 표시된다. 이 반사실적 조건문은 '텍스트의 내포작가를 전제로 한다면'과 '작가의 마음에서 상상하는 독자가 있다면'이다. 그리고 그 다음의 문장은 '현실에서 이상적 독자가 존재할 수 있다'이

40) 정복진, 「'타당한 해석'을 위한 시 교육 연구」, 『국어문학』 60호, 국어문학회, 국어문학 60, 2015년 11월, 512쪽. (511-539)

41) David Lewis, *Counterfactuals*, (Blackwell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p.85.

42) Wayne C. Booth, *The Rhetoric of Fi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p.140.

다. 이처럼 이상적 독자가 추상적 독자(abstract reader)라고 하더라도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래서 우연히 존재하지만 '실재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상적 독자는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독자로 정의할 수 있다.

4. 결론 - 이상적 독자의 의미

이상적 독자의 '이상(ideal, 理想)'은 가장 바람직한 독서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바람직한 독서인가?'는 이론과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 그뿐 아니라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다. 물론 일반적 의미에서 말하는 '작품을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읽고 즐기는 이상적 독자'는 현실에 존재한다. 독서나 독서이론에서는 이런 이상적 독자의 존재를 이상적으로 간주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작가의 마음에 내재하는 이상적 독자' 즉 텍스트 안의 이상적 내포독자(ideal implied reader, 理想的 內包讀者)이다. 텍스트 구조적 개념인 내포독자와 텍스트 해석의 기능적 개념인 이상적 독자는 층위가 다르지만, 상호교집합의 관계를 형성한다. 텍스트를 전제로 하는 이 논문의 반사실적 조건문은 '텍스트의 내포작가를 전제로 한다면'과 '작가의 마음에서 상상하는 독자가 있다면'이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현실에서 이상적 독자가 존재할 수 있다'이다.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지금까지 논의한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여러 나라의 서사이론가들은 이상적 독자 자체를 논의하지 않고, 이상적 독자의 기능과 효과를 주로 논의해 왔다. 한국의 소설연구가들 역시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상적 독자를 설명하고 있을 뿐, 이상적 독자의 존재 원리와 존재양상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대부분 이상적 독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상적 독자라는

존재자(存在者)에 대하여 논의하거나 논의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한계점을 고려할 때 이상적 독자를 논할 때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이상적 독자 개념의 성립 여부와 이상적 독자의 존재 양상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먼저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작가의 서사전략은 이상적 독자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작품의 구조와 문학성은 이상적 독자의 설정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작가는 이상적 독자를 텍스트 안의 내포독자로 구현하는 것이다.

둘째, 소설텍스트의 이상적 독자는 작가의 서사전략에 의해서 탄생한다. 작가가 텍스트에 이상적 내포독자를 설정하는 이유는, 이상적 독자가 있어야만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작가가 기대하는 이상적 독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가는 텍스트의 내포독자에 이상적 독자의 기능을 부여하고 텍스트의 이상적 독자를 대상으로 작품을 쓴다. 반면 텍스트 바깥, 즉 독자중심의 이상적 독자는 일반적 독서전략과 관계가 있다. 독자중심의 이상적 독자는 작가의 의도에 순종하는 수동적인 독자가 아니라 저항적이고 능동적이면서 창의적인 독자다. 따라서 텍스트 안의 이상적 독자와 텍스트 바깥의 이상적 독자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 이런 구별이 없이 이상적 독자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상적 독자는 조건과 전제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

셋째, 텍스트 안에서 이상적 독자는 허구적 존재이면서 작가의 마음에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할 필연성이 없고 가능성과 우연성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가 자신도 이상적인 독자이므로 이상적 독자는 최소한 한 사람 이상 존재한다. 그 이상적 독자는 실제 독자가 텍스트 안에 이상적인 양상이 '되어서〔becoming〕' '존재하는〔being〕' 것이다. 이상적 독자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면 '이상적 독자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가 되고 우연적으로 존재한

다면 '이상적 독자는 존재할 수 있다'가 된다.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이상적 독자의 존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상적 독자가 존재한다'는 명제는 참이다.

넷째, 이상적 독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텍스트의 내포작가와 상대적인 내포독자로 존재하거나 실제 작가가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상으로만 존재한다. 작가는 텍스트 안의 내포독자를 이상적 독자로 설정하므로 내포독자는 이상적 내포독자가 된다. 그런데 내포독자를 설정한 채트먼(S. Chatman)이 이상적 독자를 인정한 반면 내포독자를 설정하지 않은 웨인 부스(W. Booth)는 이상적 독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텍스트의 이상적 독자는 내포독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텍스트구조는 '실제 작가, 내포작가, 내포독자, 이상적 독자, 실제 독자'가 상호관련성이 있는 텍스트 구조다. 이렇게 볼 때 이상적 독자의 존재는 여러 관계에 놓인 상대적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상적 독자는 창작에 참여하는 생산자인 동시에 독서의 소비자라는 점에서 프로슈머(prosumer)의 양면적 기능을 수행하는 다원적 존재다.

다섯째, 이상적 독자가 존재하는 양상은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이상적 독자는 없으므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즉 작가의 서사전략이 구현되는 이상적 내포독자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①텍스트 안에 내재하면서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수동적 이상적 독자, ②텍스트 안에 내재하면서 창의적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능동적 이상적 독자, ③텍스트 바깥인 현실에 실재하면서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수동적 이상적 독자, ④텍스트 바깥인 현실에 실재하면서 창의적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능동적 이상적 독자 등이다. 이 네 유형의 이상적 독자가 존재할 필연성(necessity)은 없고 우연성(contingence)만 있다.

■ 참고문헌 ■

Prince, Gerald, “The Narratee Revisited”, Style 19, 1985.

Reader-response Criticism: From Formalism to Post-structuralism, edited by Jane P. Tompkin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0).

Schmid, Wolf, “Review of B. A. Uspenskij, A Poetics of Composition”, *Poetica* 4, 1971.

Schmid, Wolf, “Textadressat”, edited by Th. Anz., *Handbuch Literaturwissenschaft*. (Stuttgart: Metzler, 2007), vol. 1.

권성우,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책과 독서에 대하여」, 『우리문학연구』 49호, 우리문학회, 2016년 1월, (199-228)

김근호, 「독자로서의 작가 - 최인훈 <화두>의 문학독서 현상학」, 『현대소설연구』 71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5-31)

김동환, 「비판적 사고와 독서 ; 비평 능력 신장을 위한 문학 독서교육」, 『독서연구』 20권 0호, 2008년 12월. 한국독서학회.

김승환, 「소설텍스트의 현실과 허구를 나누는 선」, 『현대문학이론연구』 70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년 9월, (31-55)

김종갑, 「Wordsworth의 시에 있어서 이상적인 독자」, 『영어영문학』 39권 1호, 한국영어영문학회, 1993년 03월. (19-40)

류보라, 「청소년의 독자 인식 양상과 범주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6권 0호, 국어교육학회, 2013년 4월.

변광배, 「사르트르와 바르트의 ‘작가-독자론’ 비교 연구」, 『외국문학연구』 4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1년 11월. (55-80)

원자경, 「소설텍스트의 읽기능력 신장을 위한 질문 전략 연구 - 이상 <날개>를 중심으로 -」, 『독서연구』 20권 0호, 2011년 6월. 한국독서학회. (237-279)

이국환, 「독서, 연민과 자기 이해의 여정」, 『국제언어문학』 28호, 국제언어문학회, 2013년 10월. (25-51)

이상, 「종생기(終生記)」, 권영민의 현대문학위키, Acc., 2018년 10월 25일.

정병기, 「연구독서의 유형과 과정 및 방법- 연구독서 연구를 위한 시론(試論)과 새로운 독서법 제안」, 『사고와 표현』 제2집 제2호, 한국사고와표현

학회, 2009년 11월.

정복진, 「'타당한 해석'을 위한 시 교육 연구」, 『국어문학』 60호, 국어문학회, 국어문학 60, 2015년 11월. (511-539)

최재서, 「『천변풍경』과 『날개』에 관하야」,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Abrams, M. H., *The Mirror and the Lamp: Romantic Theory and the Critical Tradition*, (Oxford Univ Press, 1953).

Aristotle, "Categories",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vol 2, translated by J. L. Ackril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Barthes, Roland, 『텍스트의 즐거움』 『롤랑 바르트 전집』 12권, 김희영 옮김, 동문선, 2002.

Barthes, Roland, *S/V*, (New York: Blackwell Publishing, 1974).

Booth, Wayne C., *The Rhetoric of Fi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Chatman, Seymour, *Story and Discours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78).

Eco, Umberto, *The Role of the Reader: Explorations in the Semiotics of Text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Iser, Wolfgang, *The Act of Reading: a theory of aesthetic response*, (London and Henley: Routledge and Kegan Paul, 1978).

Kress, Gunther R., *Linguistic Processes in Sociocultural Practice*, (Deakin University, 1985).

Lewis, David, *Counterfactuals*, (Blackwell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Schmid, Wolf, *Narratology*, translated by Alexander Starritt, (Walter de Gruyter GmbH & co., 2010).

Toffler, Alvin, *The Third Wave*, (Bantam Books, 1980).

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Abstract>

Concept and Modality of the Ideal Reader

Kim, Seung-Hwan

'Ideal' in the 'ideal reader' is the most ideal reading among others. If so, what is the ideal reader and ideal reading? It depends upon the perspectives and situations. General meaning of the ideal reader are readers who understand writer's purposes, contents and forms of work and feel happy during the creative and critical reading by themselves. There are not likely to exist such an ideal reader actually. Narratology researchers has analyzed the general ideal reader and didn't analyze the ontological ground and modality till now. What we need for discussing the ideal reader will be the possibility of the ideal reader and the modality. The reason why writer invents the ideal reader as an implied reader is that ideal reader can understand the writer's purpose and meet the expectation of writer. Ideal reader of the writer's perspective and ideal reader of the real reader's perspective are quite different due to its contradict concepts. Passive reading and active reading are also contradictory concepts. If we use these determining factors, we can conclude of the four types of the ideal readers. Firstly, the ideal readers who understand and agreed the writer's purpose absolutely as passive readers in the text. Secondly, the ideal readers who interpret and enjoy the work with creativity as active readers in the text. Thirdly, the ideal readers who understand and agreed the

writer's purpose absolutely as passive readers outside of the text. Fourthly, the ideal readers who interpret and enjoy the work with creativity as active readers outside of the text. Existing of an ideal reader don't have any possibility but have contingence. Ideal reader may not exist other than writer.

Key words: implied reader, ideal reader, ideal reading, passive reading and active reading, text

투 고 일 : 2018년 10월 31일 심 사 일 : 2018년 11월 20일-1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2월 14일 수정마감일 : 2018년 12월 26일